‘베네수엘라 ‘군사봉기’ 실패 … 혼돈 가중

▲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연설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주도한 군사봉기 시도가 이틀 만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과이도 의장의 호소에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군 지휘관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권을 무너뜨릴 동력을 얻지 못한 것이다. 다만 군의 충성을 재확인한 마두로 대통령으로서도 미국 등 서방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과이도 의장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워 당분간 정국 혼돈이 가중될 전망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전날 수도 카라카스의 포르트 티우나 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군 사령관들과 함께 등장해 건재를 과시하며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그렇다고 마두로 정권이 여세를 몰아 과이도 의장 측을 ‘제거’ 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두로 정부가 과이도 의장을 ‘쿠데타 세력’ 으로 규정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를 체포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 상황을 교착 국면으로 보는 근거 중 하나다.

회심의 군사봉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과이도 의장으로서도 상황을 반전시킬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일단 과이도 의장은 군사봉기 카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파업과 시위로 당분간 반정부 운동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개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비중 있게 고려하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키히토 일황 퇴위 … 즉위 31년 만

아키히토 일왕(85·사진)이 지난 30일 퇴위식을 갖고 왕위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1989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와 함께 시작된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31년으로 막이 내렸다.

아키히토 일왕의 후계자인 큰아들 나루히토 왕세자는 5월 1일 새 일왕으로 즉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이날 새로운 연호는 ‘레이와(令和)’ 라고 발표하며 새 일왕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앞서 아키히토 일왕은 2016년 8월 “점차 신체가 쇠약해져 국가 상징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면서 건강상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생존한 일왕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일은 20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 여러 차례 반성의 뜻을 밝혀 아베 총리와는 다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85세 생일에는 자신의 긴 통치기간이 평화의 시대였던 것에 ‘깊은 안도’ 를 느낀다고 말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개인적으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01년 생일 기자회견에서 “내 개인으로서는 간무 천황(일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 에 쓰여 있는데 대해 한국과의 연을 느끼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퇴위식이 열린날 일본 도쿄의 번화가에서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황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왕의 존재가 ‘법에 따른 평등’ 이라는 원칙에 반한다며 “ ‘천황’ 교체를 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천황’ 을 마지막으로 ‘천황제’ 를 폐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북한, 식량 최소 136만 톤 지원 필요 10년래 최악”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유엔 기구의 공동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래 최악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최소 136만 톤의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뉴스1’ 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긴급식량안보평가단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12일까지 북한을 방문, 북한의 작년 곡물 생산량과 식량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단은 협동 농장과 농촌 지역, 도시 가정, 보육원, 식량 배급 센터 등 광범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가받았다.

에르브 베어후즐 WFP 대변인은 “이번 새로운 식량안보 평가는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북한이 작년 9~10월) 10년 만에 최악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을 확인했다.” 며 “주민 1,010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다음 수확 때까지는 이들이 먹을 충분한 식량이 없다는 의미” 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18년 종합 생산량은 약 490만톤으로 지난 몇 년 간의 평균 생산량보다 약 12% 가량 적다. 2008~2009년 생산량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수요를 채우려면 곡물 약 159만 톤을 외부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된 수입량 20만 톤과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2만1,200톤을 더해도 136만 톤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식량 배급량을 1인당 하루 300g으로 줄였다. 작년의 경우 380g을 배급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배급량이 줄어드는 7~9월에 더 적어질 수 있으며, 적절하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5~9월 북한의 식량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식단은 주로 밥과 옥수수나 감자, 김치, 야채 등으로 구성돼 다양성이 떨어지며 단백질 섭취량도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